



## • 인천직할시지부 사업과 •

### 오늘도 사업추진을 위해 뛰고있는 개성파들의 전시장

어느 시인이 4월은 잔인한 달, 고양이 낮잠에 비유하였지만 인천지부 사업과는 기생충사업이 시작되어 바쁘게 돌아간다. 아침의 출근길이 가벼워지는 것도 할일이 많아서 인가? 인간은 어느 철학자가 말했듯이 일을 하는 동물임일게다.

일갈하고, 인천직할시 사업과의 증추는 역시 송홍섭 사업과장님이다. 전주가 고향인지라 향리를 떠나 초토의 몸에 하숙을 하시느라 까다로운 식성에 인천의 음식맛은 왜 이리도 감칠맛이 없나! 오

늘도 식사 고민에 마음은 고향을 향하신다. 실은 음식맛 뿐이 아닐실게다.

모든 직원의 고민을 아버지 같이, 만형님 같이 나누시다가도 “아 뭐허! 일들허~어,” 한마디에 게슴츠레한 눈동자 들이 쟁반만해진다.

보리 문딩이 양장열씨. 요즘 틈만 나면 세살먹은 따님의 재롱에 입에 침이 마를새 없이 “글쎄...,” “있잖아...,” “고게 말이여...” 그저 행복감에 젖어있다. 누군 딸 아들 안낳고 사는가배! 경상도 사투리의

그 역양의 고거는 잘 조화된 semiclastic의 화음같아 듣는 이의 귀를 즐겁게 해준다. 손재간이 뛰어나 ‘만물수리점 주인’. 사무실 현판도 손수 각(刻)하셨다던데, 아깝다... 수려한 용모로 봐 사업과의 얼굴, 그를 닮은 개성과 배우가 아직 눈에 안뜨인다면 과찬일까? 사모님께서도 社内 couple 이라던데 그래서 업무를 너무 잘 알아 늦게 귀가를 하신다던데 말이나 되는지... 그래서 공처가 신가? 애처가 신가?

또 한분의 애처가 서순식씨. 가정사에 대해서는 늘 신비로움으로 가득하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고향이시라고. 어쩌다 그곳에서 나셨을까! 요즘같이 AIDS 공포가 그 당시엔 없기 망정이지... 날카로운 인상과 뚫어질 듯이 쳐다보는 눈, 늘 뭇사람을 훑어보는 것일까? 뭔가를 모르셔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은 숨처럼 부드러움과 순진함이 깃들여있다.

중간쯤에 끼워주어야 할 사람 들은 보건증 접수발급을 맡은 강화의 인삼아가씨 김혜숙양과 충청도 양반 가문의 공주님인 검사결과 통보관 이채옥양, 인천시민의 보건증 미발급자들이여 어찌 이 아가씨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것이런가? 김혜숙양은 걸 모습을 보고 목소리나 마음을 짐작했던 분이려면 “당황”이 반드시 뒤따랐으리라, “옥구슬이 굴러 가는 목소리. 그러나 모가난 구슬이거나 쟁반이 아마도 고르지 못했거나” 이것이 김혜숙양의 자신을 과시하는 한 어설픈 방법임을 본인 이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악했겠는가! 특히 순진한 총각들께서... 바야흐로 결혼 문제들이 마음속에서 오가실텐데... 이채옥양은 언젠가 본인에게 충청도 양반임을

은근히 과시 하면서도 까르르 웃으며 명랑함을 유난스레 강조하기도. PR의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분 데려가실 총각은 여자의 모든 장점만을 소유케 될 것이다.

심순애의 가짜애인 김중배씨. 작은눈, 스폰지헤어스타일 삼손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라면 김중배씨의 머리카락은 지혜를 가다듬기 위함인가? 매력의 포인트임을 자랑하십니까? 틈만나면 거울앞에 데이트다. 가련하다. 봐주는이 거울속 자신 뿐이니! 기생충사업을 전담, 깔끔한 용모이지만 기생충과는 천생연분. 웃으려거든 잠이나 자거라. 심순애는 언제나 돌아 올런지...

우리지부의 깔끔이 최봉철씨. 김중배씨와 책상을 맞대고 국민학교때 하던 책상다툼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건협가족들이여 건강을 위해서라면 최봉철씨를 본받아라! 외출에서 돌아와 반드시 손과얼굴을 깨끗이 씻는다.

막내, 월말보고자 배재범씨. 나이에 비해 너무 무게를 잡아 어깨 다칠라. 매력적인 경상도 싸나이 보리문당이. 슷총각. 아직 결혼하기엔 이르니 연애 보다는 풋사랑이 뭔가를 더 배워야 할 싸나이. “애! 담배불에 손덜라”.

기록원 서영섭씨. 가족이 된지 얼마안돼 잘모르지만 귀엽고 오동통한게 여자 꽤나 따르겠다.

필자야 뭐 있다, 착하고 이쁘고 성실하고 똑똑한거 빼고는... 다양한 개성파들의 전시장. 다양속에서 통일된 사업추진을 위해 하루가 또 저문다. 인천지부 사업과 여러분을 위해 박수를 청한다.

<필자=인천지부 사업과 정 진택>